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**문 의** : 지역개발연구부 이성재 연구위원
(063-280-7153, 010-2630-3248)
- **담당본부장**: 연구본부장 이강진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41)

보도시점 : 2022년 5월 30일(월)부터

새 정부 균형발전정책, 전북 특화발전의 기회로

15대 지역공약, 전북발전 견인 기대

지역 고유특성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주력 필요

- 전북연구원(원장 권혁남)은 5월 30일 14시 전북도청 중회의실(3층)에서 '새정부 균형발전정책과 전라북도 대응 방향'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.
- 이번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, 전북의 15대 공약 중 주요 사업을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한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.
-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박기관 교수는 '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국정과제, 그리고 전북의 대응 전략'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
- 지역주도 균형발전, 혁신성장 기반 일자리 창출, 지역 고유 특성 활성화를 중심으로 균형발전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라면서 균형발전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조만간 제5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, 균특회계 개편, 관련 법 정비는 물론 기회발전특구, 교육자율권 확대 시범지구 등이 새롭게 추진될 예정임에 따라 지역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
- 또한 전북에서 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배후거점 조성, 스마트 첨단도시 컨셉의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, 동부권 중심의 농생명 힐링치유벨트 조성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.
- 토론자로 참석한 전북대학교 주상현 교수, 전주대학교 최영기 교수, 산업연구원 최윤기 박사, 국토연구원 서연미 박사, 전라북도 송금현 정책기획관 등은
-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은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의 발전을 앞당기고 새만금 개발 파급효과를 전북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.
- 또한 전북의 특화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도록 전북의 역사문화, 생태환경 등 비교우위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- 특히 송금현 정책기획관은 “신산업 육성 분야를 중심으로 대기업·유관기업·대학·연구기관 유치와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을 통해 전북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.”고 말했다.
- 권혁남 원장은 “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15대 전북공약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전북의 특화발전을 실현하고,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 추진에 대한 논리개발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